

문제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아이히만과 시적 화자의 태도의 구별되는 특징은 공감의 유무이다. (가)의 아이히만의 경우 공감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변호하는 그의 태도는 타자의 감정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공감의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유대인들의 겪었을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나)에 제시된 시적 화자는 비둘기가 처한 상황에 안타까워 하는 모습에서 공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둘기가 노니던 한 때의 자유의 부재에 대해 안타까워 하며 포스터 속에 갇힌 그들의 답답함을 공감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위의 (가),(나)와 달리 (다)에 나타난 아킬레우스의 태도가 지닌 차이는 공감의 존재가능성이다. (가),(나)를 전자로 (다)를 후자로 두어 이들을 공감의 의미에 미루어 볼 때 전자의 경우 공감의 주체와 객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이 존재 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 운명론적 관점에서 모두 동일하므로 공감이 존재 할 수 없다. (가)에 나타난 아이히만은 공감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그의 주체성 결여 및 국가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며 단지 공감의 부재일 뿐 그 존재 가능성을 의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이히만과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다. (나)역시 공감의 태도를 보이며 공감이 존재성을 확인시켜준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공감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며 필요하지않다. 공감이란 나와 타자가 처한 상황이 다를 때 타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운명이라는 초월적 존재 앞에 모두를 동일하다고 본다. 즉 파트로클로스가 죽었고 아킬레우스도 곧 죽을 것이며 따라서 뤼카온 역시 어차피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살고자하는 감정에 공감할 필요가 없었다.

문제2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미루어 볼 때 공감의 태도는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모습과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하며 각자 처해진 상황도 모두 다르다. 이를 테면 사회적 지위의 차이, 부의 차이, 생각과 사고의 차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속에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의 태도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다. (가)에 나타난 곰강의 부재가 초래한 모습은 이러한 공감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게 해준다. 물론 (다)의 아킬레우스의 관점처럼 결국 모두가 처할 상황은 죽음이라는 동일한 상황일 것이며 굳이 타자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수십여년을 살아갈 현대인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모두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이 너무 길다. 수많은 타자와의 갈등과 마찰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감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감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져야 할까? 현대인들은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에 따라 보고 느끼는 것 역시 다를 것이기 때문에 타자의 생각과 감정에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의 아이히만처럼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주체성을 지니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라)의 워딩턴처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타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폭력 역시 공감하고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폭력을 이해해 볼 필요는 있다. (라)에 따르면 어떠한 사람이든 모두 내재된 폭력성이 존재한다. 이말은 즉 모두가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폭력을 저지른 사람과 내가 단지 폭력을 표면적으로 표출했는가의 차이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역시 그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인지하고 (라)의 워딩턴처럼 공감에서 비롯된 용서와 이해는 어느정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공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을 실천하며 나아가 연대로 발전한다면 좀 더 바람직한 사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